

# 안전에도 철학을 가져야



이종인 감독관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안전은 인간존엄성에서 출발한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존엄성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생각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기본 인식이다.

그러기에 안전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것에서 그 기초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소중한 사람은 저마다 소중한 기술을 가지고 작업현장에서 저마다 맡은 바 일을 하는데, 안전은 여기서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일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첫째, 사람위주의 작업이다

사업장에 가보면 기계 위주로 그리고 공간 위주로 설치된 기계를 많이 본다. 예를 들면 작업발판 없이 철골구조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일하는 사람들, 안전장치 없는 프레스에서 아찔하게 기계의 속도에 맞추어 일하는 사람, 진흙탕 같은 통로에서 마른 곳을 찾아 요리조리 뛰어다니는 사람 등이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관리자에게 「왜? 안전시설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이때 듣는 대답은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이다.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면 그것은 안전이 아니다.

사고는 불안정한 행동의 사람과 불안정한 상태의 기계가 만나서 일어난다.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방심해도 불안정하게 되어 관리가 안되는 대상이지만, 기계나 설비는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언제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대상이다.

그럼 누가 양보해야 하겠는가?

당연히 기계와 설비가 양보해야 한다.

사업장의 시설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장치는 사용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사용되게 설치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안전시설을 해야 하는가?

이때에도 근로자 위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를 작업설계사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작업을 도울 의미로 근로자가 불편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작업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의견 및 작업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장치는 결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며, 결국은 안전장치가 망가지고, 심지어는 잘못된 안전장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안전장치는 근로자가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근로자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한 건설회사에서는 건물을 짓고 나서 바로 도로포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잔디를 건물주변에 깔아 놓는다. 그리고 한달쯤 지난 후, 사람이 많이 다닌 길, 차량이 다닌 길, 물이 고였음에도 사람이 다닌 길 등이 나타나면 그 때 그 실정에 맞도록 길을 설치한다.

차량이 다닌 길은 아스팔트 길을,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자갈과 통나무를 이용하여 자연 친화적 환경 등으로 꾸민다. 굳이, “잔디를 밟지 마세요”라는 표지를 붙일 필요도 없도록 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너무 일방적으로 틀에 맞추어 길을 만들고, 잔디밭에 울타리를 치고는 통제한다. 그러나 어김 없이 잔디밭에는 사람 발자국이 남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인가 의심스럽다.

우리들의 안전도 마찬가지다.

시설이라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무조건 지키란다고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입장에 서라는 것이다.

안전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 설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용후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합하도록 변형하여야 한다.

이때 꼭 참고할 것은 근로자의 의견이다. 근로자가 공장의 주인이며, 시설의 주인이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근로자가 자기 이름을 못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맞추어 모든 시설을 하여야 한다.

### 둘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회사 사람과 자주 접하는 나는 언젠가 멕시코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멕시코 현장의 수주금액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이익이 많이 남는 공사로 판단되어 한 기업인이 즉각 수주에 응하여 낙찰을 받고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업이 진척되지 않는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우리나라 같으면 근로자에게 단순히 용접일 A에서부터 B까지 하라고 하면 자신이 알아서 다 하는데, 멕시코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데 있다. 멕시코 근로자는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하나 짚어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고, 재료의 공급이 없거나 자세한 일의 내용 및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한 예로 볼트의 너트가 맞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기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수 많은 작업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적응 실패로 손해를 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나는 근로자에 대한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유한 책임자라기보다는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진 무한 책임자로, 책임은 없고 일할 의무만 있는 천방지축 통제불능 상태의 근로자가 아닐까?

울산에 와서 한 외국업체 사장이 우리 사무소에 와서 한 말이 아직도 내 귀에 울린다.

‘왜 안전장치를 설치하였는데 근로자는 해체하고 작업하며, 그것을 경영자 책임이라고 노동부는 왜 지적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는 것이다.

그렇다. 안전장치를 해체하는 고의적 행위는 근로자 잘못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경영자 책임으로 지적해왔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나라 근로자는 책임은 없고 일할 의무만 있는 천방지축 통제불능의 무한 책임자!

결과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안전문화 정착의 토양과 씨앗은 인간존중의 철학에 근거한 작업방법과 작업순서를 철저히 이행하는 장인정신이다.

이것은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방법 및 절차를 디자인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 작업하는 절차, 새로운 방법을 건의하여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재도안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안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안전이나, 우리나라 사업주는 시키는 일만하는 일이 없으면 노는 근로자를 보면 어찌 생각할까? 아마도 무능하고 소극적이고, 나태한 근로자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기계도 고치고 위험한 곳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뛰어 들면 애사심이 강하다고 칭찬하지 않을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주의를 돌아볼 때라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작업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그 절차가 라면봉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어린 아이도 이에 따라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보면 '바빠서, 이정도야, 조심하면 되니까. 이런 것까지, 대충하면 돼, 생산이 중요하지, 뭐해? 빨리해, 하루 이틀 이일하나?' 등 작업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들로, 한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창고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져 있어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자.

휘발유가 창고바닥에 뿌려진 것이 잘못일까? 불을 붙인 것이 잘못일까?

창고바닥에 휘발유가 뿌려지게 된 과정 즉 절차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일 불을 붙인 것을 잘못이라 판단하여 불안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넘긴다면, 중요한 시설적인 면에서 개선할 수 없는 핑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천천히 돌아보면 왜 휘발유가 창고에 뿌려지게 되었으며, 어느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를 점검한다면 다시는 휘발유가 창고 바닥에 뿌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생명의 소중함을 전제로 한 인간 존중의 철학에 근거한 작업방법과 작업순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장인정신이야말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과 씨앗의 역할을 하리라 본다. 